

■ 2025년도 다원예술 창작산실(개인/단체, 공간)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다원예술 창작산실(개인/단체, 공간)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2024년 12월 9일(월) 17:00~19:00 / 아르코미술관 위원회의실

- (2차) 2024년 12월 16일(월) 10:00~15:00, 12월 17일(화)~19일(목) 10:00~18:00 / 오라카이 대학로 호텔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영환, 김윤희, 김준희, 김진희, 배남우

<2025년 다원예술 창작산실> 사업은 장르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목적으로 실험적 작품 창작을 하는 창작자와 매개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실험적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의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2개 유형으로 구분해(개인/단체, 공간) 진행했습니다. 사업 주체에 따라 심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심의 기준은 개인/단체의 경우 작품성(40%), 계획의 충실성(40%), 기대효과(20%)를, 공간의 경우 사업수행 역량(40%), 사업 목표 및 계획의 충실성(30%), 기대효과(30%)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5명의 전담 심의위원이 위의 심의 기준에 따라 1차 서류 심의,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검토했으며, 접수된 총 300건에서 행정 결격 3건을 제외한 297건의 지원서 중 최종 3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래 사항을 주요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지원서의 사업계획이 다원예술의 가치를 담고 있는가, 실험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예술적 완성도를 기대할 수 있는가, 현시대에 질문을 던지는 의미 있는 주제를 포함하는가, 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 창작자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가, 대상 관객을 고려하고 관객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공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다원예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가, 창작자의 활동을 매개할 수 있는가를 추가로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심의에서는 새로운 얼굴의 진입과 성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가도약지원 등의 사업으로 테스트베드 기회를 얻은 창작자들이 본 사업에 지원했고, 차별성 있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예비-신진-중견 예술가의 연결성 있는 단계적 성장을 설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존 창작자 중심의 소규모 프로젝트가 아닌 다수의 참여자가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술 작품 창작뿐 아니라 국내외 유통의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는 지원서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자, 프로듀서의 역할과 제작 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예술가가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작품 창작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홍보 및 관객 개발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다원예술은 실험성으로 인해

관객층 또한 실험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사업을 통한 관객 개발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모든 창작자, 공간, 지원 주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선정된 사업들은 관객 개발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향 속에 심의위원회는 깊은 논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그룹은 의미 있는 문제의식을 주제로 확장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이후 활동과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신청 사업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본 심의를 통해 노련한 예술가의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신진 예술가의 패기 넘치는 도전 또한 품을 수 있고, 다양한 주제를 포용할 수 있는 다원예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정 단체들의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 용감한 도전을 응원함과 동시에 공공 자금을 집행하는 주체로서의 책임감과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자로서의 적극성 또한 요청드립니다.

선정 단체들의 활동과 성장을 통해 다원예술의 실험성과 새로움, 다양성이 확산되어 예술계 전반에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불어넣고, 관객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다원예술 창작산실 심의위원회 일동